

Letters to the editor

『한외과대학에서의 한외과 수업 만족도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에 대한 논의

한상윤¹

¹대전대학교 한외과대학

A discussion on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in classes of pre-Korean medicine

Sang Yun Han¹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Received: April 19, 2024

Revised: April 22, 2024

Accepted: April 22, 2024

Corresponding Author:

Sang Yun Ha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12207, 62 Daehak-ro, Dong-
gu, Daejeon, 34520, Korea
E-mail: drhan@dju.kr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in classes of pre-Korean medicine” published in the latest issue of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J Kor Med Edu, 2023, Vol. 1, Issue 2, pp. 50-62)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dissatisfaction factors and proposed a solution to the dissatisfaction factors.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great in that it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revamping the Korean Medicine curriculum or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teaching methods of professors in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present the scope of the curriculum and clarify the categories of satisfaction factors for the curriculum. Additionally, I do not agree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complete standardization of Korean medicine mentioned in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by applying it to the grading criteria for each subject test. This is because each subject, instructor, and student’s learning method or attitude will have a more direct impact on student grades than academic standardiz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improving future Korean medicine education. As a follow-up study, a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the entire Korean medicine curriculum.

Keywords: Qualitative study, Curriculum satisfaction, Pre-Korean medicine classes

한의학교육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한외과대학에서의 한외과 수업 만족도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J Kor Med Edu, 2023, Vol. 1, Issue 2, pp. 50-62)¹는 한외과 과정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외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학문적, 개인적, 교육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였고, 학생들의 반

응과 나름의 해결 시도를 조사한데 이어 교육과정 불만족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을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한외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한외과 교원의 교수법 개선 및 강화에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 부합하면서 연구의 학술적, 실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수자의 활동과 자세 및 교육접근 자세까지 확대하여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만족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제목은 ‘한의학과 수업 만족도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이고 논문 내에서도 불만족 요인에 대한 학생 반응과 해결 시도, 불만족 요인 해결방안에서는 그 범위를 ‘한의학과 수업’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아마 FGI 2 라운드에서는 1 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에 집중하여 심층 조사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되나, 만족과 불만족 요인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한의예과 교육과정 만족 요인에서 ‘가. 교육접근 방법으로서의 학문적 요인’, ‘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문을 대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기술된 소재들은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수식 어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 내 불만족 요인과 해결방안 등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학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만 기술해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의예과 교육과정 만족 요인 중 개인적 요인에서 (3) 많은 학업량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4) 한의학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동심리는 다른 개인적 요인 (1), (2)와 범주를 달리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과(4)는 그 자체로 만족 요인이 되기 보다는 인위적인 노력과 인지를 통한 체념과 반발심에 해당하기에 실제 학생의 교육과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 요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고찰 및 결론에서 ‘유급제도의 부담감’과 ‘일부 불분명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학문의 불명확성이 채점기준의 모호함으로 이어져 유급제도에까지 연결되는 것은 과도한 비약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급이라는 제도는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 대해 학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자가 유급을 무기삼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유급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두려움이 과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한의학의 불완전한 표준화를 각 교과 시험의 채점기준에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성격의 문제보다 각 교과와 교수자의 특수성,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방법과 태도가 더 직접적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질적인 한의예과 교육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데, 예컨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자가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주는 노력을 한다든가 교재를 국한혼용으로 병기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모호한 한의학적 개념을 이미 규명된 인체 생명현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면 학생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다. 현재 여러 한의과대학

에서 개설하고 있는 통합교과의 교육 내용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만족도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과대학 재학 중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의학 교육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학생 중심의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out funding.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iD

한상윤 <http://orcid.org/0000-0002-6174-1078>

CRedit Statement

Conceptualization: SYH; Methodology: SYH; Project administration: SYH; Writing—original draft: SYH; Writing—review & editing: SYH.

Data Availability

The data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on reasonable request.

References

1. In-Jun H, Min-Ryeong P, Ji-Won L, Gyoo Yong C, Seon-Kyoung K, Chan-Young K.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in classes of pre-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2023;1:50–62. <https://doi.org/10.23215/JKME.PUB.1.2.50>